

表具의 科學(Ⅱ)

安喜均

金基燮

目次

1. 研究의 概要
2. 表具技術의 記錄
3. 表具材料와 技術에 關한 研究
4. 두루마리 作品의 保存 및 修理에 關한 研究

1. 研究의 概要

本稿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個年에 걸쳐 日本 東京 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 共同으로 研究 發表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表具研究의 기초자료로 活用하기 위하여 保存科學研究 第7輯에 이어 連載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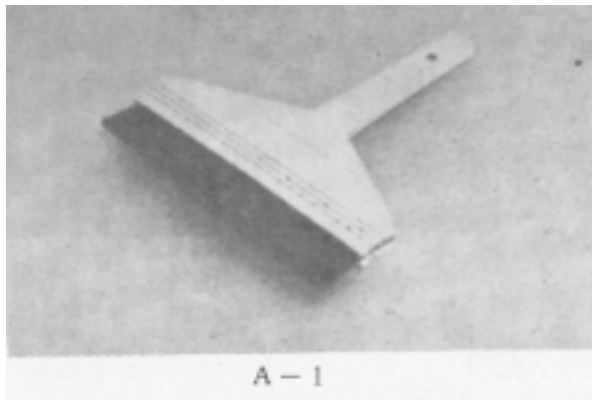
2. 表具技術의 記錄

1) 工具

表具에 사용되고 있는 工具類는 近代技術의 工具와는 달리 各表具社마다 名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그중 이름이 없는 工具도 있다.

또 使用目的은 같지만 工具自體는 틀리는 것이 있으며 하나의 공구로 여러 目的에 使用하는 例도 있다.

여기서는 標準的인 工具에 關하여 說明하기로 한다.



[솔]

A-1 풀솔

곰털, 말목部分의 毛製, 幅 5才(約 15cm), 솔길이(約 2.7cm)

물풀, 뽕풀 등의 풀칠하는데 使用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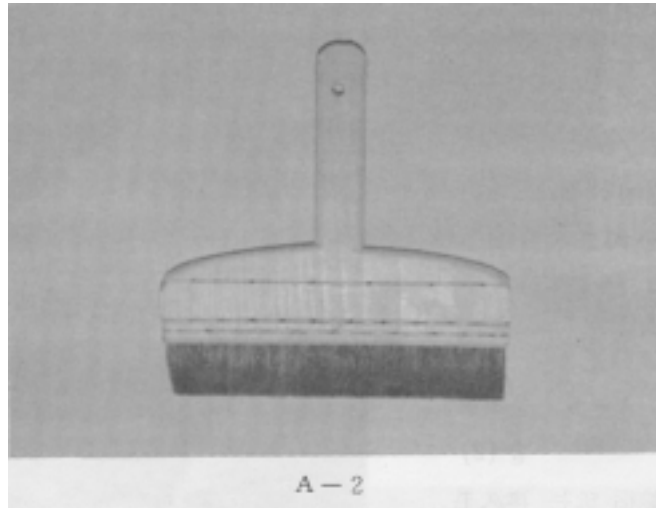
A-2 작은풀솔

곰털, 너구리털製

幅5寸(約 15cm)

솔길이 七分(約 2.7cm)

뒤편을 폭을 좁게 칠하기 때문에 솔길이가 普通의 풀솔보다 약간 얇고 짧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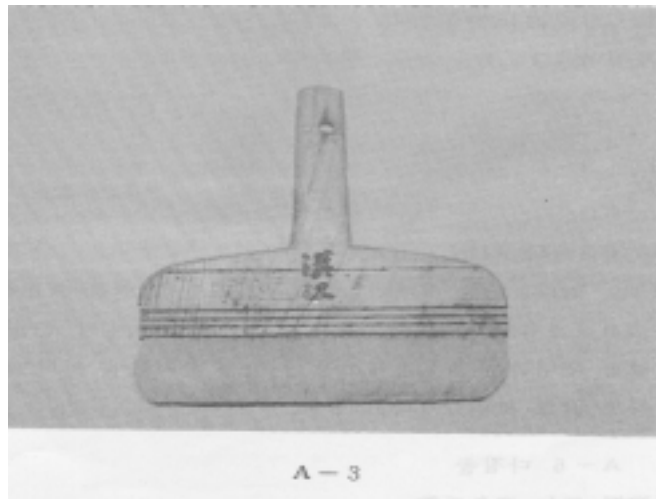
A-3 물솔

사슴털製

幅五寸(約 15cm)

솔길이 七分(約 2.1cm)

물을 칠하기 때문에 풀솔보다 털이 두텁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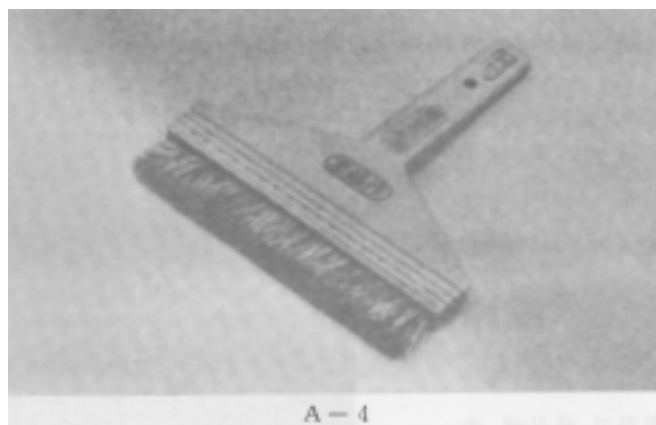
A-4 문지름솔(1)

羊毛, 사슴털製

幅五寸(約 15cm)

솔길이 七分(約 2.1cm)

배접한 후 부드럽게 바르고 누르는데 쓰인다.



A-5 문지름솔(2)

棕梠 또는 津久毛(棕梠의 일종)
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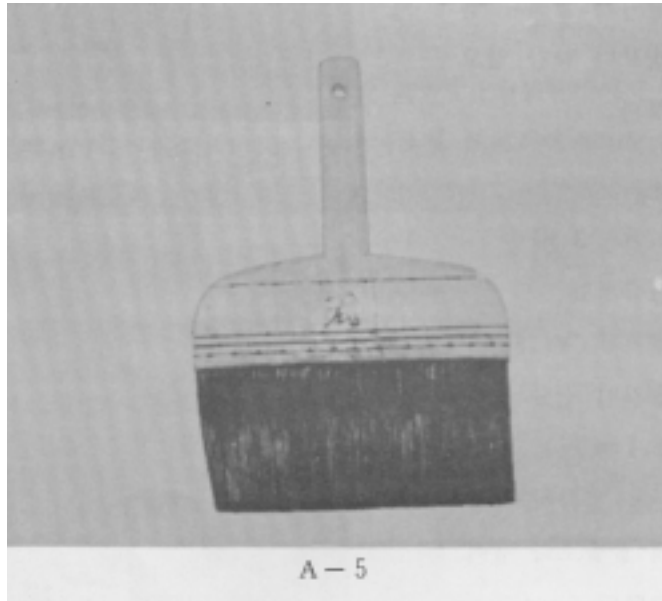
幅五寸(約 15cm)

솔길이二才二分(約 6.6 cm)

약간 강하게 바르고 누르는데
有效하다.

문지름솔의 (1)도 (2)도 使用目
的은 같지만 거의 문지름솔(2)만을
使用하는 表具社가 많다. 그러한 表
具社에서는 문지름솔 이라면 만드
시 津久毛의 솔을 가리키는 것이다.

(1)과 (2)를 같이 使用하는 表具社
에서는 (1)만을 문지름솔 이라고 하
면 (2)는 문지름솔 이라고 하지 않고 棕梠솔이라고 한다.



A-6 다짐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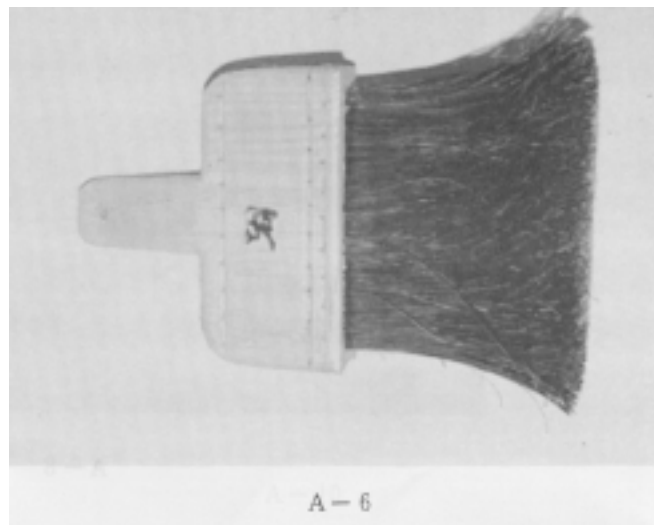
棕梠 또는 津久毛製

幅五寸(約 15cm)

솔길이二寸三分(約 6.9 cm)

털의 두께는 一寸八分(約 5.4cm)

배접을 행하고 문지른 다음 잘
接着시키기 위하여는 털끝으로 紙面
을 두드리는 作業을 行하는데 바로
이것이 쓰이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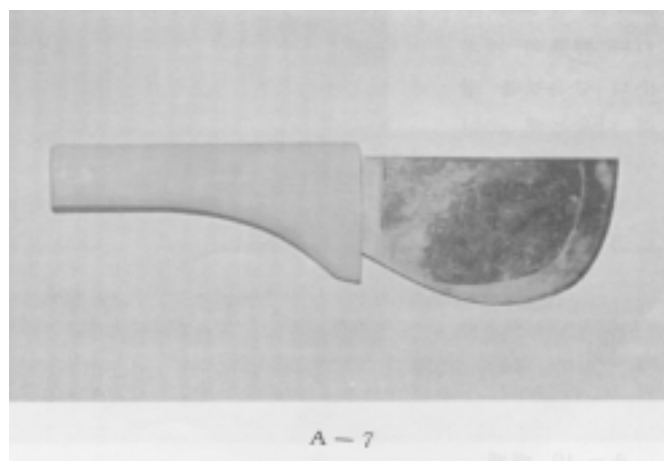


[칼종류]

A-7 둥근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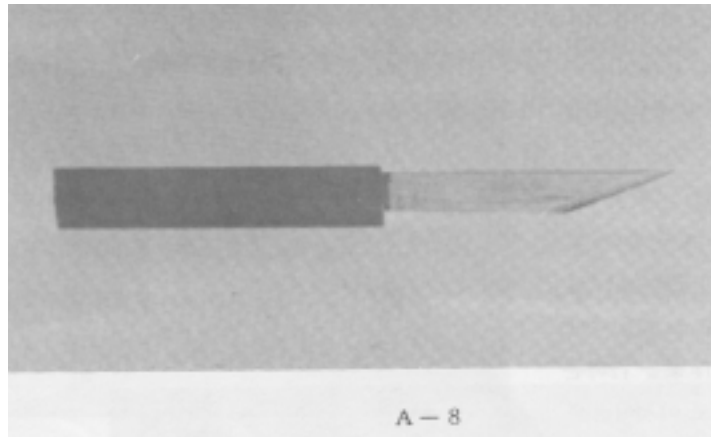
종이를 直線으로 裁斷하는데 쓰
이는 칼의 일종이다.

각 表具社에서 많이 쓰인다.



A-8 자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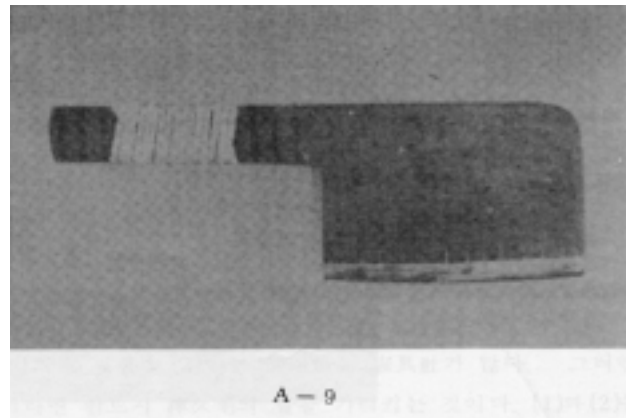
木工用으로서 軸首를 끼는데 사용한다.



A-9 다듬는 칼

木工用 반달의 小口나 屏風의 갖의 小口같은 것을 잘라 다듬는데 쓰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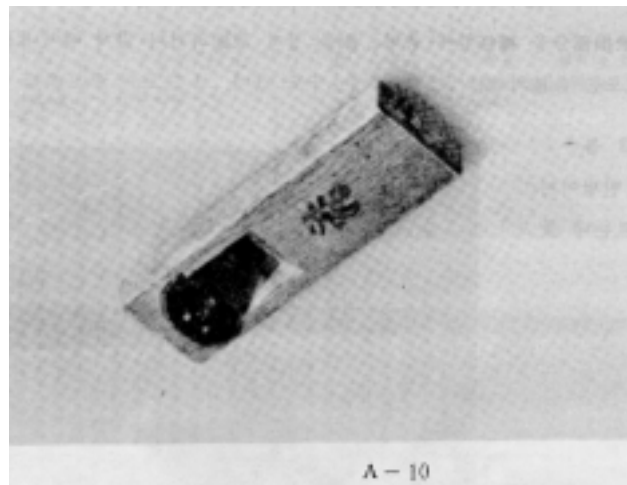
關西地方에서는 留切包丁을 쓰지 않고 小型의 다듬는 칼을 쓰고 있다.



A-10 대패

木工用으로 軸이나 반달잡는데 쓰임. 보통크기(刃幅 二寸一分 6.3cm이다)

또 幅一寸 内外(約 3cm)의 작은 대패도 있다.



A-11 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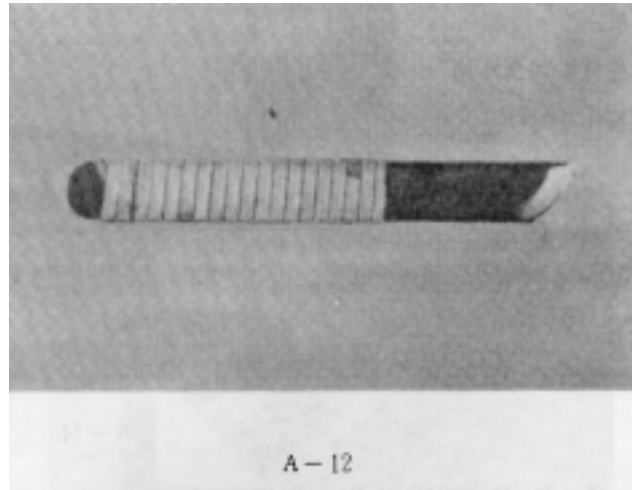
木工用 네눈錐, 세눈錐의 二種이 있음 반달에 족자못을 붙이는데 쓰인다.

A-12 도장칼

刃幅三分(9c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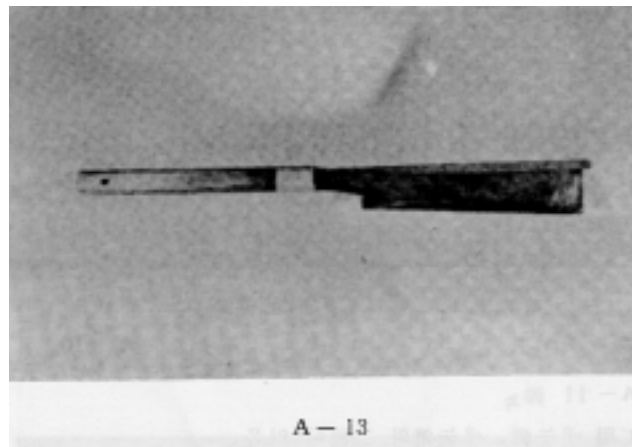
前後의 片刃의 印刃, 丸刃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.

畫面의 缺損部分을 補修할 때 종이, 絹을 잘게 裁斷하거나 얇게 떼어내는데 使用된다. 現在로는 各種의 칼타로 代用하는 수도 있다.



A-13 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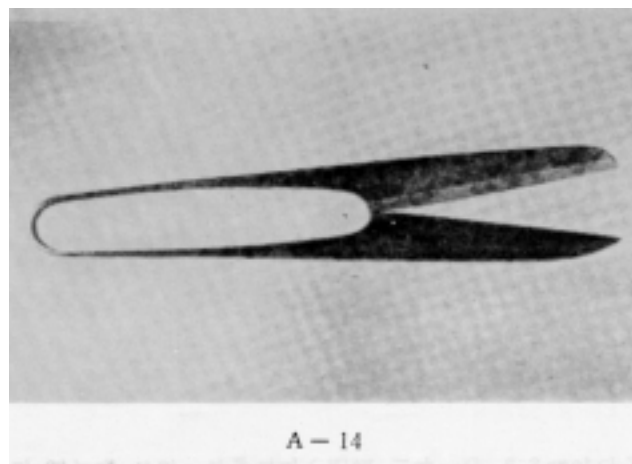
木工用 반달이나 軸을 자르는데 使用한다.



A-14 가위

通常의 자르는 가위.

종이를 자르기 위하여 쓰인다.



A-15 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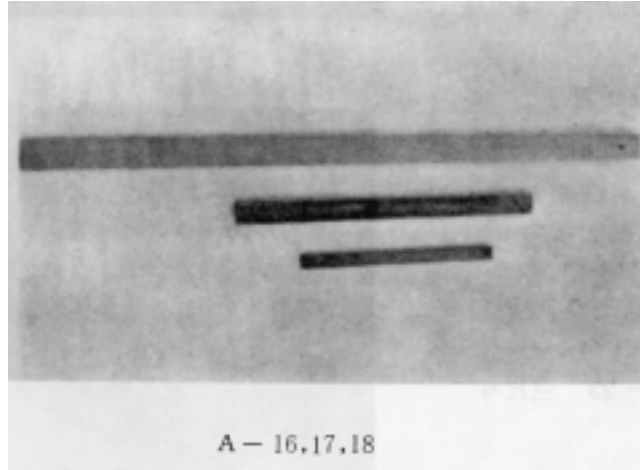
通常의 바늘 風帶만드는데 또는 風帶를 붙이는데 쓰임.

[定木]

直線이나 直角으로 자르고 또 종이나 비단을 正確하게 裁斷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.

A-16 長定木

길이 6尺(約 200cm) 이상의 直線자, 檜木材의 좁은 板子로 양쪽은 벗나무와 같은 堅木을 붙인 것도 있다.



A-17 三尺定木

檜木材 三尺의 길이인 것을 자르기 위하여 만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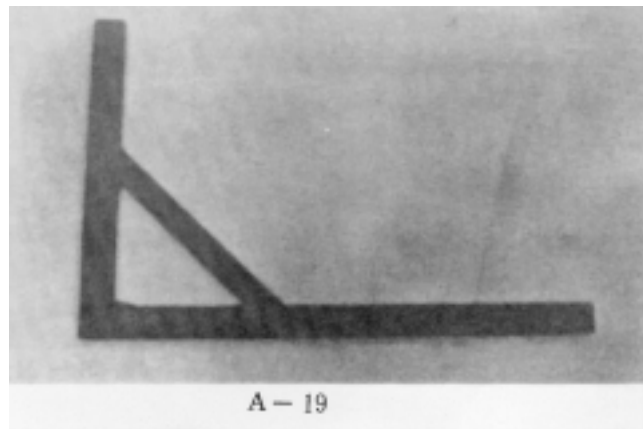
約三尺五寸(106cm)의 길이가 있다.

A-18 小定木

檜木材 二尺(約 60cm)이하의 자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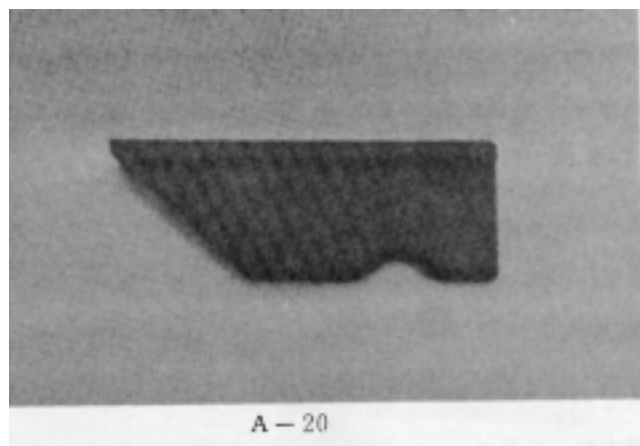
A-19 木曲(굽은 定木)

檜木材 대형의 直角자 비단무늬를 直角으로 잡을 때 使用



A-20 留型

特殊한 直角자, 반달을 자르고 붙이는데 쓰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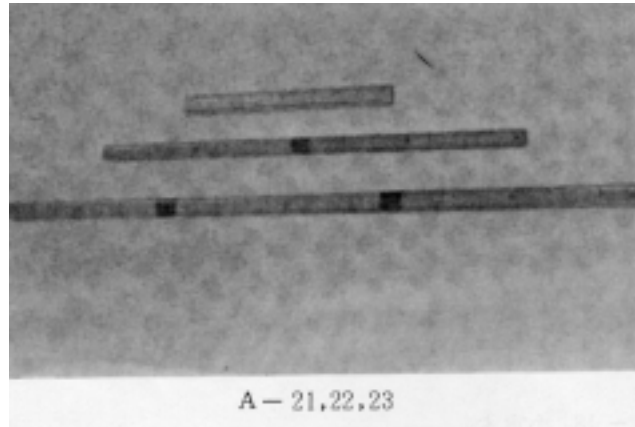
[자]

竹製, 寸法계산을 위하여 없어서는
않될 道具

A-21 一尺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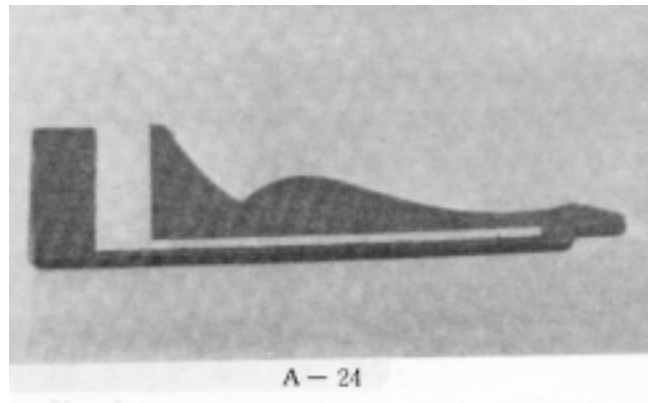
A-22 二尺자

A-23 三尺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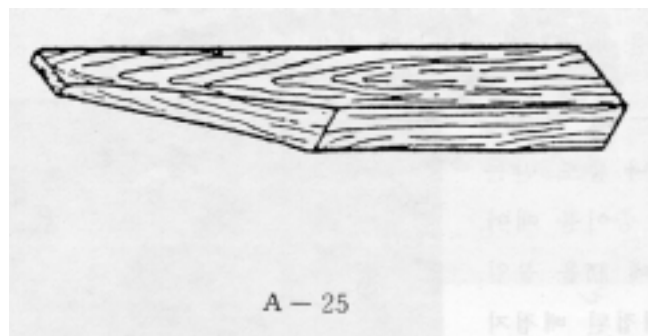
A-24 분자

裁斷 또는 檣材 등의 堅本으로 만든
노기스, 直徑이나 두께를 재기 위하여
쓰임.



A-25 分木

楔形의 木片으로 先端의 幅은 五
~一分五厘(1.5mm~4.5mm)쯤까지 必
要한 것에 맞춰 손으로 만들고 小筋
의 굵기를 一定하게 하기 위하여 쓰
인다.



[망 치]

A-26 쇠망치

一船 쇠망치와 같은 것 이음새에 쓰임.

A-27 玄能(큰쇠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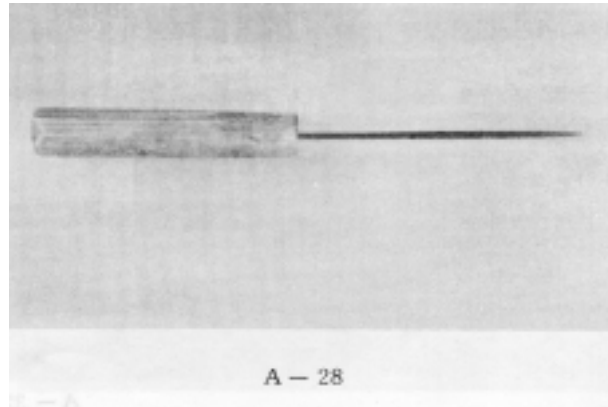
一船 玄能과 같은 것.

장식붙일 때 쓰임.

[기 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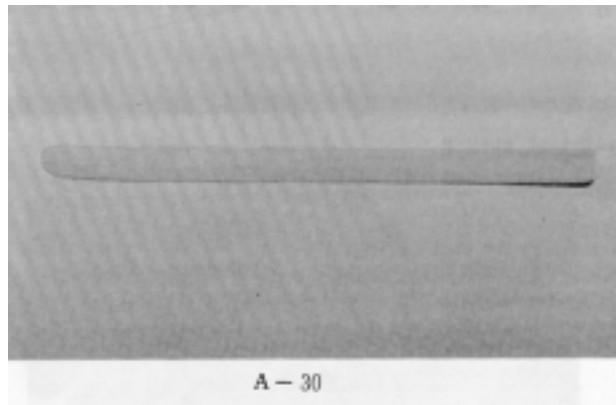
A-28 송곳

一船 송곳과 같은 것으로 三寸 (9cm) 정도 길이의 침을 자루에 붙여서 使用하는 수도 있다. 구멍 뚫는데 表示하는데 쓰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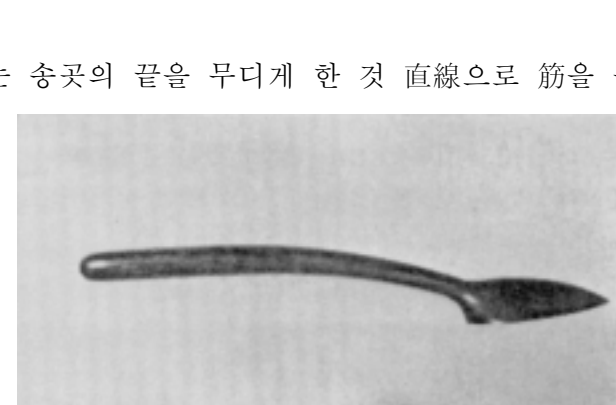
A-29 핀셋트

一船 스텐레스製를 많이들 씀. 풀 칠할 때 티끌 등을 털어내기 위한 것 외에 補修때 細片을 取扱하기 위하는데 쓰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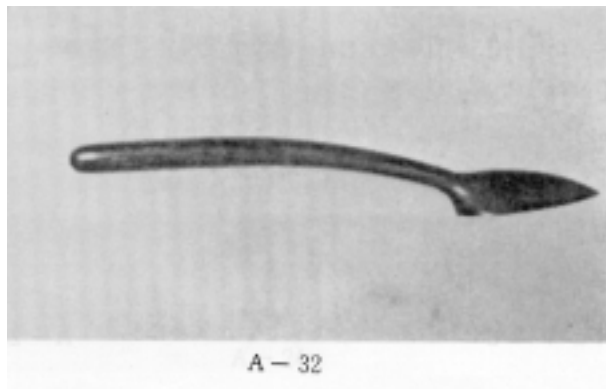
A-30 헤 라

대나 빨로 만든 헤라 종이를 떼어 내는데 筋을 붙일 때 배접된 배접지를 떼어낼 때 등에 쓰임.



A-31 筋붙이기

등근칼의 잇날을 무디게 한 것 또는 송곳의 끝을 무디게 한 것 直線으로 筋을 붙여 종이를 접어 구부릴 때 등에 쓰인다. 이것은 主로 關西地方에서 使用된다. 表具社에 따라서 이것을 「野?」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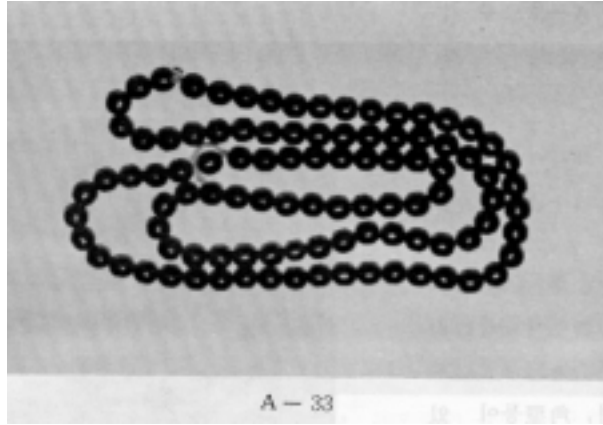
A-32 나무인두

인두型을 한 木製헤라, 細部를 누르는데 쓰임.



A-33 뒤문지름

유리, 無患子나 무의 種子 등을 실로 엮어 놓은 것. 두루마리 뒷면을 문질러서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쓰임.



A-34 들레

대 또는 木製의 자와 同形의 막대기 배접할 때 풀을 칠한 종이를 들 때 쓰인다.

「들대」라는 것은 日本의 關東地方에서 이름지어 쓰지만 關西地方에서는 特別히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다. 工程途中 必要에 의하여 자를 代用하기도 한다.

A-35 누름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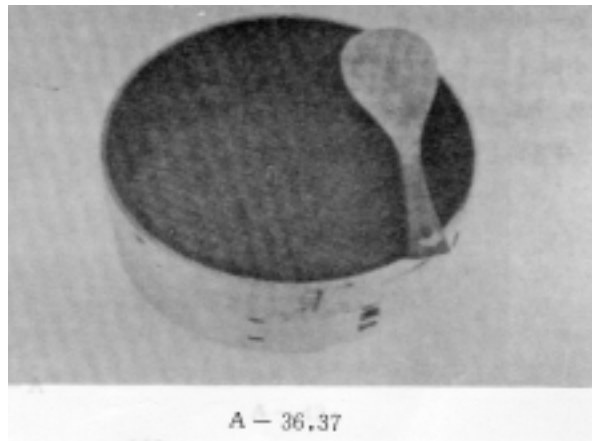
쇠나 납으로 네모형태로 제작된 것을 종이로 싸서 만든 것으로 종이 등을 누르는데 쓰는 도구

A-36 풀걸름체

一船 걸름체와 같음.

눈이 거치른 순서로 구분하는데 걸름체에는 대체로 三種이 있다.

풀을 쭈어서 덩어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쓰임.



A-37 주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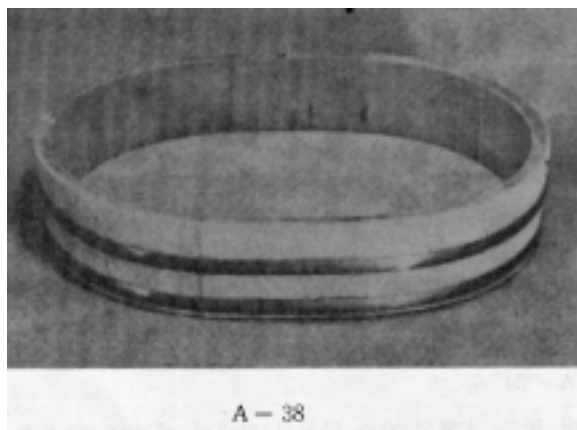
一船의 주걱과 같음. 풀을 으깰 때 쓰임.

A-38 풀 통

화백나무 또는 진나무로 만든 낮은 통으로 作業을 行할 때 풀을 담는 容器로서 둥그런 것(丸形). 타원형, 角形등이 있다.

[대형 도구]

넓고 평평한 도구로서 표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대형도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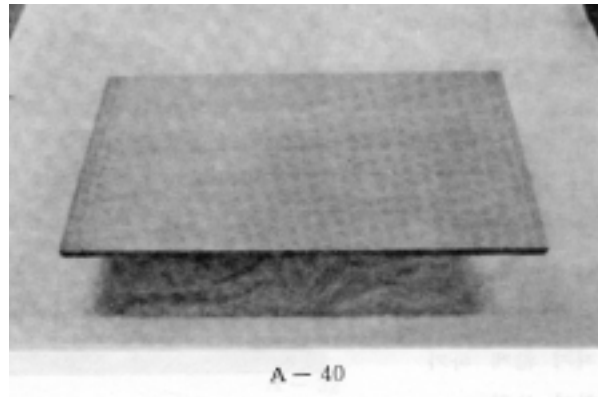


A-39 小板(작은판)

전나무로 만든 平板으로 二尺×三尺(約 60cm×90cm)정도의 크기, 종이나 비단을 재단 하든가 또는 풀을 칠할 때 사용한다. 一種의 工作臺 같은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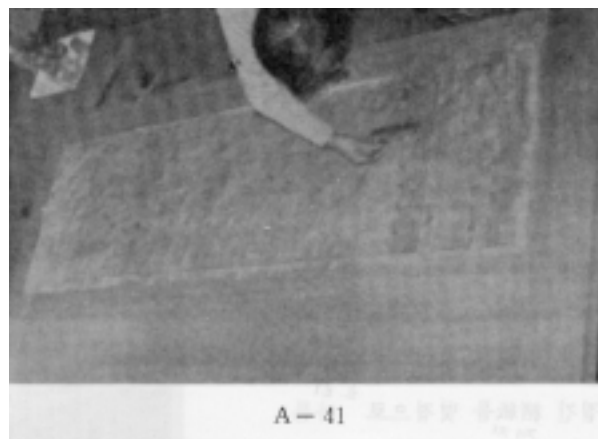
A-40 풀칠용판

小板과 같은 것으로 주로 풀칠할 때 사용하는 판



A-41 御板

3尺×6尺(約 90cm×180cm) 이상, 전나무로 만든 두꺼운 平板으로 通常 小板과 같은 것, 몇 장을 單板으로 하여 이것을 이어서 만들고 兩端을 장식으로 한다. 이것은 平平하여야 한다는 것이 重要하며 휘거나 우글거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이것을 解體대패 같은 것을 써서 다시 잡아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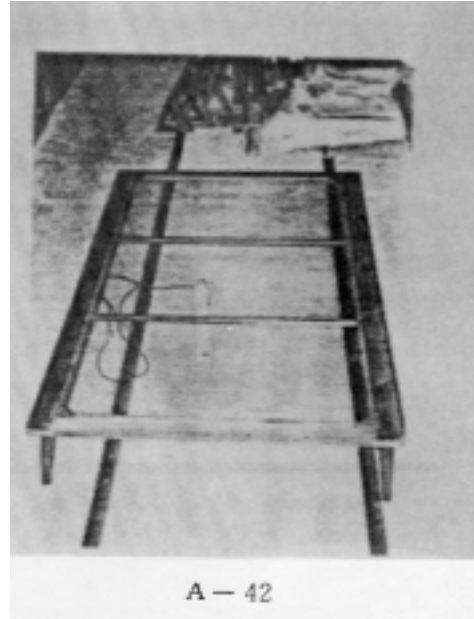
表具의 平面保持을 위하여는 가장 重要的 道具이다.

日本の 關西地方에서는 「盤」 「盤板」이라고들 한다. 關東地方에서는 「御板」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.

A-42 補修用 作業臺

修理때 有效한 道具이며 A-41, A-42와 같이 古來로부터 쓰여진 傳統的인 道具는 아니다. 유리 또는 프라스틱板에다 나무받침을 한 作業臺로 아래로부터 照明을 쏘여 表具를 비치게 하여 補修 또는 其他의 作業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研究品이다.

作品의 배접지를 떼내는 경우, 本紙의 缺失部를 補修하는 경우 등에 有效한 道具이다.



A-43 건조판

건조판은 병풍틀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. 杉白太의 角材를 문살모양으로 짜서 지지대로 하고 그 表裏에 질긴 楮紙를 몇겹으로 바른다. (보통7~9겹)

表面에는 감물을 칠해서 만들어낸 것으로서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배접지를 이위에서 臨時로 붙여 平平하게 乾燥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. (계속)

